

농지은행 '두마리 토끼' 잡았다

7조3천억 투입 19만ha 영농규모화 사업

쌀 경쟁력 향상·농가 경영안정 크게 기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이 쌀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최근 발표한 '2012년도 농지은행사업 평가·분석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추진한 영농규모화사업에 지금까지 모두 7조 3199억원이 투입돼 19만5684ha의

농지를 확대·집단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규모가 지원 전 2.6ha에서 지난해 5.6ha로 늘었고, 농가소득도 가구당 5700만원이 됐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경영희생지원사업에 1조1670억원을 투입, 경영 위기에 처한 4887개 농가를 지

원했다. 이를 통해 담보농지의 경매 처분을 방지함으로써 7년간 총 3851억원에 해당하는 농지 자산가치가 보존됐다.

공사가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11만336명의 농지소유자로부터 5만7910ha 농지를 수탁, 9만9312개 농가에 장기 임대해 일차 농가 평균 0.58ha의 경영 규모를 늘렸다.

농가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일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 시행 당시부터 지난해 2202건의 약정이 체결됐으며, 평균 81만원의 연금을 지급해 고령농업인

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2013년 농지은행사업에 모두 40억원을 확보, ▲영농규모화 과원규모화 ▲경영희생지원사업 ▲농지매입 비축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경기도 의왕시 인제개발원에서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농지은행사업 담당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담당=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봄처녀와 개나리

봄을 재촉하듯 요란한 한바탕 비가 지나간 18일 오후 강진군 강진읍의 한 언덕배기 가장자리에 심어진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활짝 터트리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화순 성안마을 현장학습 "단골됐네"

공무원·디자인 전공 학생 방문 잇따라

지난 2011년 마을미술프로젝트가 시행된 뒤 마을 전체가 하나의 미술 작품처럼 조성된 화순 성안마을이 뜨고 있다. 공무원들은 물론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성안마을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18일 "지난 14일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중 공공디자인 과정 교육생들이 화순 성안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남 공무원교육원이 개설과정 중 공공디자인 과정의 현장방문 대상으로 화순 성안마을을 꼽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교육생들은 하니울 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실에서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성과와 공공디자인의 연계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남산~성안마을~5일시장을 방문했다.<사진>

/화순=조성수기자 css@



신안 섬지역도 하반기 고속버스 운행

군, 주민 환승 불편 덜기 위해 암태·자은 등 4개 지역 금호고속 투입

신안군이 도서지방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 고속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갈수록 고령화돼 가는 섬 주민들이 육지를 나가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마을버스에서 여객선으로 또 다시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등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부권 4개면 군은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등 중부권 4개면 도서지역에 금호고속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금호고속 측

과 버스운행에 따른 차량 철부도선 승선 및 운행노선 소요시간 점검 등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 따라 기존 선착장 시설은 차량 승, 하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오는 7월까지 선착장 보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부권 4개면 5000여 세대 1만여명의 주민들이 여객선을 갈아타지 않고 광주버스터미널까지 직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호고속 측의 노선 손실과 신안농협 차도선비 지원 등에 따른

제반 사항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신안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교통망이 송공함으로써 집중될 것으로 보고 고속버스 운행사업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박우람 군수는 "그동안 도서지역 민들의 교통 불편에 항상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진기자 sslee@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 A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는 무안군민 희망입니다

무안군민연회

무안군민들이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현수막 게시와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안군민 "목포대 의대유치" 팔 걷어

버스터미널·남악사거리 등서 현수막 달고 서명운동

무안군 청계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무안군민들이 의대유치 현수막 게시와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안군민들은 무안읍버스터미널 뿐만 아니라 전남도청이 소재한 남악사거리, 무안군 중심 교차로일대에 목포대 의대유치관련 현수막 50여개

가 게시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수막 홍보문구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무안군민의 힘으로 일궈봅시다!" 등 군민들의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는 문구들이 게시돼 있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반영회, 노목포대 의대유치관련 현수막 50여개

청년연합회 등 관내 유관사회단체들이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목포대 의대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김형진 청계면 반영회장은 "전남에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도농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목포 땅 커졌다

공유수면 매립 등 10년 새 200만㎡ 늘어

목포 땅 면적이 10년 사이 200만㎡나 늘었다. 부족한 항만과 산업 용지를 확충하고자 진행된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결과다.

18일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목포항 등지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113만 1000㎡의 토지가 생겼다. 개발 중인 북항과 남항의 토지 조성 사업이 내년에 모두 끝나면 총 203만4000㎡의 토지가 늘어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km)의 70% 규모다. 목포항만청은 그동안 목포 신항 지역을 비롯한 북항, 남항 등지에서 항만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재정 또는 민간자본으로 총 14건의 매립사업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목포항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신항개발 등 매립사업이 예정돼 토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청자장인 양성반 개강

강진도예학교

강진도예학교가 청자 장인 양성을 위해 지난 15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펼쳐지는 청자장인 양성교육반을 개강했다.

이날 개강식은 24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사배배경, 사배필요성, 사업현황, 각 과정별 강사소개 및 진행과정, 운영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청자장인양성 교육생들은 연말까지 청자 기업 발전방안연구 및 물레성형 심화학습, 향아리·매병 등 기초도자, 산업도자를 배우게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